

# 34 朝鮮土地改良事業史

(조선 토지 개량 사업사)

이 책은 조선 통치 관계 주요 문헌의 하나로  
전 조선 총독부 토지 개량 과장 이인 후루

이후 이쓰오 (吉庄逸夫) (昭和女子大 교수) 씨가

1960년 1월 7일 펴낸 200부 한정 판이다

185쪽으러된 이 책은 조선 총독부에

무하던 사람 등의 친목 단체인 友邦協會

(유방 첩회)에서 방문했다

구심은 前編(전편) 中編(중편) 後編(후편)

으로 되어 있는데 전편은 일본 통치 이전

의 토지 개량 사업과 조선산미(朝鮮產米)

증식 제화 등에 관한 것을 기록했고 중편

에는 동지강 수리조합 등 비롯한 한해 수

리조합 함흥 수리조합과 안녕(安寧) 수리조

조합 소화(平南) 수리조합 등 대규모 수리

조합에 관한 기록을 수록했고 후편에서는

수리조합 사업과 관련된 회고담으로 이루어

러 있다

이 책에 따르면 한말(韓末)이던 훈수  
 있는 1912년의 우리나라 提墾數(제연수)  
 는 3,735 개소이고 보(沼)는 8,386 개소였는

데 1917년에는 각각 6500 개소와 21,000  
 개소를 늘어났다고 되어 있다

또한 1910년 (한일합방병) 당시의 <sup>인구량</sup> ~~인구~~는  
 1,000 만석이었는데 해방되면 1945년  
 에는 2300 만석으로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다  
 이것은 일제강점기간 우리나라의 경지면

적 이 2배로 늘어 났다는 것을 상기 하면 된  
다

동진강 수리조항사에 따르면 수리사업  
실시 이전의 전리북도 일대는 습지(濕  
地)였다고 한다. 그래서 왕조시대(王朝時  
代)에도 이 지역은 도를 뚫어 준가 없었  
다 한다. 동진강 수리조항은 당시 전리  
북도 리사 ~~앞~~ (莫角忠藏) 가 퇴임 후 스스로  
조항장이 되어 1925년에 조항을 설립했  
다. 동진강 수리조항 설립의 직접적 원 계

기는 1924년 남산(南鮮) 지방의 대항노농이  
 었다. 이때 동진강 수리조합 지역인  
 김제(金堤) 부문(富門) 扶安(扶安)은 그 피해  
 가 극심하였<sup>다</sup> <sup>대대시</sup> 김제 <sup>동진강</sup> 수리조합은 이 들  
 3개 군 (鎭) 22 면(面)에 약 560정민 (약 4,400만평)  
 으로는 당시 조선 최대의 수리조합이 었다.  
 그들의 회고담에 의하면 일제 통치 하에  
 있을 때 일분씩 수많은 투기 문둥이 었  
 다. 토지는 물론 수리조합에도 이러한  
 후세가 밟아 밟았<sup>다</sup> 그 대표적인 것이

당시 이복의 문교부 장관 (종전 후 수상) 이  
 있던 하도야마 (鳩山一郎) 의 백산 (白山)  
 수리 조항 이다 당시 하도야마는 친히 조선  
 에 와서 해방 북도 북반 소만국 제지 역의 국유지  
 6,000 정지를 <sup>분할</sup> ~~분할~~ 하여 수리 조항 까지 설립 했  
 으니 비동사기 되지 않아 경국은 자급을  
 대충한 석산 은행과 조선 총독부가 동거  
 사업은 정리 하기 든 했다